



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 전망

국제통화기금은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3.9%로 예측함. 성장률 둔화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각국 금융당국들의 정책적 노력 및 글로벌 정책공조 필요성이 긴요해지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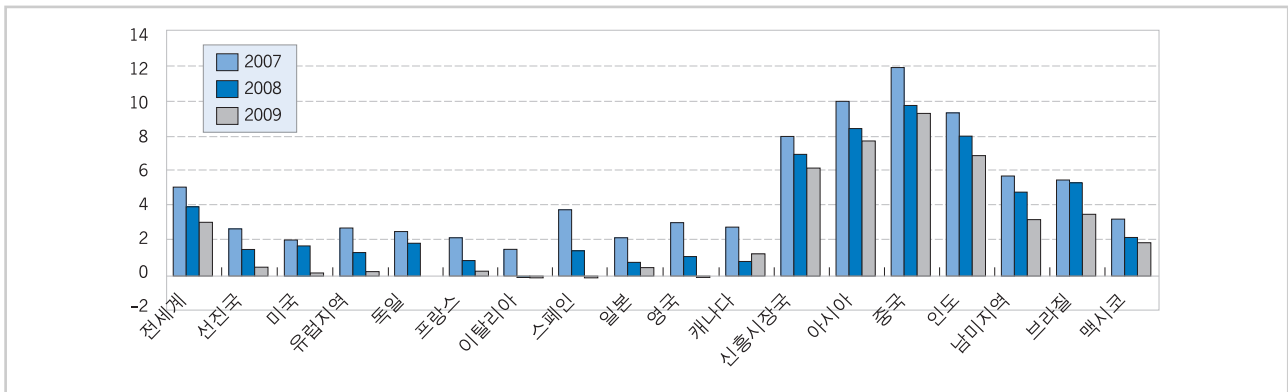
- 10월 9일 국제통화기금(IMF)은 '세계 경제 전망보고서'를 통해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침체국면 진입을 암시함.
 - 보고서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지난 1930년대와 같은 경제공황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,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.
- IMF는 지난해 5.0%를 기록한 세계 경제성장률이 금년에는 3.9%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.
 -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IMF는 미국과 유럽지역은 이미 경기침체기로 접어들었거나 이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 - 이는 금년 7월 IMF가 발표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, 2009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발표치보다 0.9%p 하향 조정된 3.0%로 전망하여 당분간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을 지속될 것으로 분석함.
 - 이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지정하고 있는 경기침체 수준의 성장률인 2.5%~3.0% 범위에 속함.
 - 미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.7%p 하향 조정된 0.1%로 낮추고 주택가격은 10% 추가 하락하며 실업률도 5.6%에서 6.9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, 유럽지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%p 하향 조정된 0.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-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덜한 신흥시장국도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 -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신용경색이 최근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.
 - IMF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.5%p 하향 조정된 9.3%로, 인도는 6.9%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


- 금융위기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아프리카지역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.9%에서 내년도에는 6.3%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음.
- 자원수출국의 경우에는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 및 유럽에 대한 수출의존도 및 금융산업과 해외자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유동성 경색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음.
-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는 신흥시장국들의 생산성 향상 및 법률정비 등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함.

〈그림〉 IMF의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

(단위 : %)



자료 : World Economic Outlook, 2008년 10월

- 이와 함께 경제성장세 둔화 및 상품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8월말 기준 4.25%에 달했던 선진국 연간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8.25%를 기록하고 있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.
 - IMF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, 식량가격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적함.
- IMF는 경기침체 국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각국 금융당국의 노력 및 글로벌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음.
 - IMF는 경기침체가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2009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았으나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함.
 - 경기회복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는 상품가격 안정, 미국주택시장 회복,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, 주요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처리 등을 지적함.
 - IMF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들의 정책적 공조 및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의 동시 금리인하 움직임 및 구제금융 지원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. **KIF**